나는 -------------다.

2315 최승호

여러분은 사회에서 어느 역할을 맡았으면 좋을까 생각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생각을 해보셨다면, 어떤 것인가요? 구성원을 이끄는 리더 역할입니까? 아니면 리더를 따라 구성원을 이끌 수 있도록 돕는 부 리더 역할을 더 선호 하십니까? 아니면 가장 핵심인 구성원이 되고 싶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성원 보다는 리더를 더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또한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리더는 모두를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감, 어쩔 수 없는 리더로서의 희생 등 많은 노력과 정성이 필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이유로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물론 리더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가졌다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점점 작은 사회 구성인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리더를 해 나가게 된다면 미래에 다른 사람에게 인정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리더로서의 책임감과 역할들이 공부나 일을 하고 있다가 힘들고 지칠 때,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해주는 채찍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이러한 희망 때문에 저는 ‘스윙스’라는 래퍼를 가장 존경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힙합이나 랩을 즐겨 듣고, 그가 랩을 놀라울 정도로 잘하지만 그 이유가 존경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는 ‘Just Music’ 이라는 힙합 소속사를 세워 수 년간 최고라고 인정 받으며 최근에는 ‘Indigo Music’이나 ‘위더플럭’ 같은 하층 소속사까지 세우며 사람들에게 리더로서의 자질이 충분한 사람이라 인정 받고, 제가 보기에도 같은 구성원들을 정말 가족처럼, 형처럼 챙겨주는 모습이 너무 멋져 보여서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랑도 많이 받고 있지만 선이 있으면 악도 있듯이, 수많은 사람들의 질타도 많이 받기 마련입니다. 특히 연예인들은 대중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있기 때문에 더 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타를 즐기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자신 앞에 와서 용기 있게 싫다고 얘기한다면 그를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인정 해 줄만큼 멘탈도 강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남의 생각을 존중 할 줄 아는 그가 너무 멋지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스윙스처럼 리더로서의 자격이 충분히 되고, 멘탈도 강하며, 남의 생각을 존중할 줄 아는 이가 되기 위해서, 더 자세히는 IT 업계에서 최고의 리더가 되기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리더들도 마찬가지지만 IT업계에서도 한가지 분야만 잘해서는 절대 리더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를 배우기 위해 정말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저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즐기면서 노력한다’면 아마 그런 이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것을 하던지 결과보다는 노력 위주로 생각해야 합니다. 노력을 했을수록 쌓이는 지식과 경혐이 더욱 더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든다면 대회에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상을 타지 못했다고 가정 했을 때, 내가 상을 타지 못했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남들보다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또한, 저는 ‘행복을 얻기 위해 일을 하기보다는 행복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감명 깊게 들은 힙합 노래 중 ‘Cooler Than The Cool’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에서 팔로알토라는 래퍼는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의 삶에 대한 문제점을 랩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상 깊은 부분은 **“가족과 행복 위해 일을 하는 건데 하다 보면 대화 나눌 시간조차 부족해”** 라는 가사입니다. 말 그대로 행복을 위해 쫓아다니기만 하면 절대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을 노력하며 살아야하고, 덧붙여 그 나이 대에 맞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자기가 일을 하면서 행복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는 저는 당연히 지금, 그런 일이 꿈꾸며 공부를 하는 시간들이 힘들지만 행복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남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제품을 만들고 싶은 기획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해 줄지 항상 고민하며 노력하는 기획자, 실패를 통해 지식을 얻으며 항상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기획자, 팀원을 이끄며 함께하는 기획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며 행복해 할 줄 아는 기획자, 저는 그런 ‘임베디드 IoT 기획자’ 를 꿈꾸는 최승호입니다.